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Rural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Korea

- Focus on the Policies of Nonghyup and Agro-healing -

Zhanfang Sun*

Abstract: The Strategy of Rural development i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14th Five-Year Order, and it is a strategic starting poi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rural villages by solving the issues related with agriculture, farmer and rural area of China. Recently, scholars who study Korea's 'Saemaul Undong' are very interested in its role i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ndustry and agriculture. However, there is a less studies on socioeconomic organization. Socioeconomic organizations are contributing greatly to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rural areas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pay more attention to. In this paper, focusing on multifunctional rural organizations, the rapid development of Nonghyup after the 'Saemaul Movement' in Korea, the construction in terms of comprehensive functions is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socio-economic organization was analysed. In the last part, we also analyze the Agro-healing policy of Korea and its roles, and provide specific suggestions on the future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eyword: Rural Revitalization in China, Nonghyup, Agos Farming, Economic externalities, Agro-healing.

*Zhanfang Sun: President of Interculture Development Int'l Society of Korea Distinguished Professor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Technologies

중국 향촌진흥과 한중농업협력에 대한 전망

- 농협과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

손점방*

요 약: 향촌진흥(鄉村振興)은 중국의 ‘십사오(十四五)’ 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의 ‘삼농(三農)’ 문제를 해결하여 신농촌 건설의 전략적 시발점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농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사회경제조직은 국내외 농촌의 발전과 실천과정에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무시하면 안되는 존재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기능 농촌 사단조직을 중심으로 현 연구 시점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후의 농협의 빠른 속도의 발전과 종합적인 기능 측면에서의 건설을 돌아보며 농업경제의 외부성 이론을 도입해 농촌의 건설에서 사회경제조직의 작용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 치유농업의 정책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통해 한중의 농업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제안을 제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향촌진흥(鄉村振興), 한중농업협력, 한국농협, 치유농업, 농업경제 외부성

1 한중농업국제협력을 돌아보기

세계적으로 공업화의 진행과 농업의 발전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협력은 하나의 공통 의식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농업 발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등과 한국이 있다. 지리적인 원인과 문화적 가치의 성향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중국하고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문화의 유사성과 같이 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소농 경제 등 체적인 측면에

서 살필 때 한국 농촌의 발전은 중국에서 참고로 삼을 가치가 높다.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내용에 따르면 ' (한중일 FTA)' 자유 무역구의 건설 배경에서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과 한국은 현대 농업 영역에서의 협력할 상황이 매우 많다. 한국농협과 일본농협의 발전 배경이 다르지만 일정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본문에서 한국농협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회조직의 협력 측면에서 중국의 향촌 진흥이 본받을 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한중농업영역에서의 협력은 무역과

*손점방: 한국 국제인터넷발달학회 회장; 특빙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농업, 산업의 투자 등 영역에서의 협력 이외에도 신농촌(新农村)의 건설 등 영역에서의 이론적 교류와 산업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빈번하다.

중국의 신농촌 건설은 2004년 11월부터 정부에서 기획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중앙에서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 발전을 통해서 향촌의 발전을 이끈다.'라는 구상이 나왔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으로 농촌을 반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라는 반대의견의 고려가 있었다. 2004년 12월 중국 국무원 참사실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발전 상황을 고찰하였다. 이후 2005년 5월에 중국 중앙정책 연구실, 중앙재정 리더팀, 재경부, 건설부, 중앙은행 등 여러 국가부문에서 8명 전문가를 한국에 보내 '새마을운동'의 건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팀이 중국에 돌아와 한국 '새마을 운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제안을 하였다. 그들은 현재 중국은 더욱 좋은 조건과 능력으로 농촌의 건설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췄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진행된 시점에 중국은 한국에 못지않은 경제적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두 보고는 '십일오 (十一五)' 규정건설에서 제정이 되었고 '사회주의 신농촌의 건설'의 중요한 참고 근거가 되었다.

2015년에 중국과 한국이 쌍무무역 협정을 맺었다. 양국은 서로에게 더욱 많은 방향과 넓은 영역에서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 중에서 농산품 무역은 중요한 협정 내용중의 하나이다. 2017년 12월12일에 중국

전국공소합작총공사와 한국 농협은 베이징에서 전략적 협력 협의를 맺었다. 협의에 따라 양국은 금융, 무역, 투자, 훈련, 전자상무 등 영역에서 넓게 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2 한중 양국의 농촌 발전실적 비교

2.1 중국 신농촌 건설과 향촌진흥 전략에 대하여

2021년 2월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향촌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 즉 2021년 중앙 1호 문서로 발표되었다. 21세기부터 18번째 '삼농(三農)'작업을 지도하는 중앙 1호 문서의 발표로써 '삼농'문제의 해결을 통해 농촌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십사오(十三五) 작업의 중점으로 삼을 결심이 보인다. 이 문서는 또한 새로운 시기에서 삼농작업, 즉 전체적인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면적인 배치이다.

이 문서에서는 농업, 농촌의 발전을 우선시하여, 이를 통해 농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농산품의 공급, 생태 보호, 문화 전승 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노선을 지켜 농업,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공업, 농업사이의 상호 촉진을 가속화하고 도시, 향촌의 상호 보완, 협조적인 발전, 공통 번영을 맞이하는 신형 공업, 농업 향촌 관계를 형성한다. 2021년 농업 공

급 구조의 심층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2025년에 농업, 농촌 현대화의 중요한 진전이 보일 것이다.

이전에도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의 중앙 1호 문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농민의 수입을 증가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다. 농민 수입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 여러 농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005년의 중앙 1호 문서는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 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향상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농업문제를 중점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2006년의 중앙 1호 문서에서는 농촌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까지 중국 중앙에서는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화된 방침, 정책 및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농민의 수입, 농업 현대화, 현대 농업에 관한 문서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2018년 중국 중앙위원회는 《향촌 진흥전략계획 (2018-2022)》을 발행하였다. 《계획》은 산업의 흥성, 살기 좋은 생태, 세련된 시골 품격, 유효한 관리, 부유한 삶 등의 요구를 따라 향촌진흥전략에서 단계적이고 세분한 계획을 하여 2020년에 소강사회 (小康社会)를 이루는 것과 2022년에 중국 공산당이 열린 이십대에서의 목표까지 명확히 나타내었다.

2021년 3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전적으로 탈빈(脱贫)을 확대하고 공고히 한 성과를 향촌진흥과 유효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에서 탈빈 지역의 경제적 실력이 뚜렷하게 향상이 되어 해당 지역의 농촌 저소득 인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도시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보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에 따라 이전 농촌에서의 빈곤 원조 작업과 향촌진흥전략과의 연결에 대한 견해가 있었으며 농촌에서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4월 29일 중국에서 제 13회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6월1일부터시행)을 투표로 통과를 하여 법적 측면에서 향촌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였다.

2.2 한국 농협의 발전과 기능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는 시대적 배경은 1945년도 한국이 독립한 후에 1962년에서 1971년까지이다. 이 동안 한국 정부는 상품을 대외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이로 인하여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이 매우 빠르지만 공업과 농업의 발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급격히 커져서 수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그 당시 한국의 국민인당수입이 85달러에 불과했으며 농업이 GNP의 43%를 차지하였고 농업노동력이 총취업 인구의 63%를 차지하였다. 80%의 농민은 의식주가 문제가 되어 수입이 매우 낮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전형적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

경에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1970년 4월에 농민, 해당 기관들, 지도사 사이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한 '새마을운동'을 제안하였다.

이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 근면, 자조,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농민을 이끌어 그들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전개하여 한국경제와 사회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국정부는 농촌에서의 전문단체에 의지하였다. 한국농협은 '새마을 운동'에서 중요한 단체의 역할이 되었고 농협의 빠른 성장도 '새마을운동'의 성과 중의 하나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한국 농협은 농민이 자주적으로 결성된 활동 조직이다. 한국농협은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높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단체이다. 한국농협은 '계약', '향약'식의 단순한 상호 협조하는 조직이 아닌 입법을 기초로 하는 종합적인 농업 협업 조직이며 세계적으로 소농경제를 주체로 하는 국가의 농업 단체조직의 모범이다. 현재 한국농협은 금융, 물류, 신용권, 농업교육의 지원 등 여러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농협은 한국의 신농촌 건설, 도시, 향촌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1957년 2월 14일에 한국 독립 후 첫 번째 《농업협동조합법》을 반포하여 이것을 통해 전국농협중앙회 (NFAC, 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를 1958년에 성립하였다. 이의 주요 업무

는 농산품의 공급과 판매이다. 그리고 1961년 7월 29일에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농업협동 조합법》을 반포하였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전국농협중앙회를 농업은행과 합일을 하여 한국농협(NAC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을 설립하여 농협의 금융적인 영향력을 높여 하부 농협을 상호 돕게 하여 금융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농협의 저축 연이자는 일반 은행의 연이자보다 2%, 3%정도 높았으며 정부에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투자나 보조는 모두 농협의 금융 기구를 통하여 진행이 된다.

1961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의 병합에 인하여 한국농협조직의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중앙회, 시, 군, 리, 동 순서가 된다. 농협의 위층 조직구조는 정부의 법규에 따라 정해졌고 그 아래 조직은 점차 만들어 간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인사 임명하여 전형적인 직선의 구조특징을 띄고 있어서 계급간의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의 대부분 결정은 시, 군 급의 계급에서 처리하고 리, 동 계급에서 지도한다. 한국농협은 1968년에 하위계급을 재조합 하여 리, 동 계급의 조합 수를 감소시켜 조합마다 구성원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농협조직의 구조는 평면화되었고 반복된 서비스의 자본금을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협에서 독립 업무 관리 부서를 새로 설립하여 농협의 업무 범위를 넓혀 농협조직에서 농민이 주도하는 지위를 높였다. 이것으로 한국 농협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사회경제조직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이후 《농업협동조합법》의 여러 차례의 수정과 점차 커져가는 농협의 업무 범위로 인하여 현재 한국농협의 종합적인 기능이 복사하는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 교육과 지원사업, 유통, 공급과 저장, 신용과 은행 업무, 복리 및 보건, 다른 경제단체와의 경제, 사회, 문화교류, 다른 기관에서의 위탁업무, 법규에 따른 다른 업무 등과 같이 농협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여러 다른 사업들이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 농협은 법적으로 허락된 모든 업무를 전부 진행을 하였다. 현재 농협의 기능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은 경영 측면에서 평등적, 자발적, 협력 정신으로 구성된 농민, 농촌, 농업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영 작용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영리적 지도와 훈련, 일상용품을 생산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정부와 농민 개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농업과 이와 관련된 다른 업무, 농업종사자들과 위탁자들의 신용대금 서비스하는 기능, 농촌사회 치리와 도시, 향촌 발전에서의 조절 작용이 있다.

3 농업경제의 외부성과 종합적 사회경제조직이 향촌진흥에 있어서의 중요성

한편으로는 중국과 한국은 집단문화와 유교문화의 영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향신과 향리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치리가 깊은 흔적을 남겼

으며 사회경제조직이 개체들을 단결시킬 때에 크게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촌 자원의 외부성으로 인하여 소농경제를 주체로 상호 돕고 협력하는 형태가 사회경제조직의 작용을 강화했다. 정부에서의 보조금과 지도 외에 사회경제 조직은 상호 돕는 것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자본금을 낮추고 유통과 매출에서 대외적으로의 협력에서 경쟁적인 우세를 갖춘다.

경제외부성은 개체 또는 집단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다른 개체와 집단이 손익을 보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사회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 자본금과 결과는 그 개인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향촌의 생태 건설의 요구, 농촌사업 발전으로 인한 환경 문제, 농촌 여행지 개발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고유 생물군과 생태에 대한 영향 등은 농업에서 투입하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일정한 기술과 사회적인 조건을 갖추 때 농촌의 개발과 이용은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오지만, 해당 재산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영자가 이러한 이득으로 인하여 과도한 농촌의 개발과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공시설과 기초시설들은 정부와 공기관에서 보호와 정비를 해야 한다. 농산품의 구매자는 일정한 농산품에 투자한 금액을 지불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보호와 정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의 수리와 도로 건설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농촌지역과 농업계는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지침으로 인

하여 '업계협회', '공소연합체', '농업지역연맹' 등 단체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갖춘 사회경제조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농협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4 노령화문제 및 치유농업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한중 치유 농업 영역의 국제 협력

윗부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중 농업의 발전 전망에는 같은 비전, 즉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제 불균형 해소, 국민 복지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세기부터 한국, 중국 및 일본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출산을 감소 및 심각한 인구 노령화 등 인구난을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전세계 적으로 생태와 저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발전에 있어서 생태화하려는 추세가 시작되었다. 특히 대중들이 농업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요구가 나타나면서 위 문제들과 더불어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4.1 한중 노령화 현황

노령화문제는 현재 동아시아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인구증가율이 1% 채가 안된 상황에서 2015년에 더욱 낮은 성장수치로 0.33%

가 되었다. 이와 반면에 세계 인구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1.2%였다(2015).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차지비율은 9.5%나 되면서 선진국의 노령화 기준비율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수의 7%)에 비해 훨씬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령화 문제가 급격해지면 한국의 인구수는 2030년에 5200만 명의 최고치를 지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24.3%나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통계청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에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겨우 0.28%밖에 안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3.38%나 달했다.

현재 한국의 90.9% 노인인구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예방 및 증재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는 완치를 목적으로 의료기술을 발전할 것인지가 모든 노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국가가 고민해야 할 난제이다. 만일 농업을 중심으로 노령화 인구의 병환을 예방 및 증재할 수 있으면 의료 영역에 있어서 과대한 자금투입을 감소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문제를 닥치고 있으나 의료시설인 병상의 부족으로 더욱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치유농업, 또는 치유여행 측면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한국 노령화 현화

연도	총인구 (만명)	65 세이상 노인인구 (만명)	노인인구 차지비율	출생인구 (만명)	총 출산율	합계출산율 TFR	인구 증가율
2017	5136	706	13.8%	35	7 ‰	1.08	0.28%
2018	5158	736	14.3%	32	6.4 ‰	0.97	0.43%
2019	5176	768	14.9%	30	5.9 ‰	0.91	0.35%
2020	5183	815	15.7%	27	5.3 ‰	0.89	0.14%
2021	5174	857	16.6%	26	5.1 ‰	0.88	-0.18%

*합계출산율: 여성 1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출처: 한국통계청

현재 중국에서도 노령화와 관련하여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2000 년도의 인구 보편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그때부터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020 년도 중국 제 7 차 전국 인구 보편조사의 통계수치에서는 중국의 60 세 이상 노인인구가 2.64 억명에 달하였고 총 인구수의 18.7%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중에서 65 세이상 인구는 1.91 억명으로 총인구수의 13.5%를 차지하였으며 장

애 및 반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 인구 수는 4000 만명이나 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수가 가장 방대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민정부 양로서비스부에서는 ‘십사오’ 기간 동안 중국의 노인인구는 3 억을 넘어 심각한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며 2053 년이 되면 노인인구는 최고치인 4.87 억명에 달하고 전국 총인구수의 34.9%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표 2. 중국 노령화 현황

연도	총인구 (만명)	65 세이상 노인인구 (만명)	노인인구 차지비율	출생인구 (만명)	총 출산율	합계출산율 TFR	인구 증가율
2017	140011	23252	16.7%	1723	12.64‰	1.81	0.61%
2018	140541	24222	17.3%	1523	10.86‰	1.55	0.47%
2019	141008	25087	18.1%	1465	10.41‰	1.50	0.35%
2020	141212	26402	18.7%	1200	8.52‰	1.28	0.24%
2021	121260	26736	18.9%	1062	7.52‰	1.15	0.09%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Sara O. Marberry 는 1995 년에 연구를 통해 농업이 환자들의 질환을 완화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추후 많은 학자들은 농업이 장애 회복이나 고독증과 비롯한 증상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논하였다. 농업으로서의 치유는 개인 능동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 치유는 일상 생활하는 공간과 비슷한 양상을 갖추고 있기에 개개인의 사회성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치유농업은 체험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기 효율성, 자기 존재성과 양성할 수 있는 사회적 스킬, 작업능력, 일상생활능력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치유농업은 정부주도적 촉진, 전문적인 법적 보장과 노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한국이 여러 시기에서 반포해온 농업 정책들과 비슷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4.2 한국 치유농업 정책의 발상

2013 년 한국 농업진흥청은 타국 치유농업관련 사례 및 파급효과의 기초로 한국 치유농업(agro-healing)의 개념을 내세웠다. 이 용어는 1980 년 원예치료와 1990 년부터 시작된 산림치유 및 동물교감 치유의 발전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장된 내용으로 농업환경 및 문화자원과 향촌 여행(Green Tour)의 측면에 있다. 향후 원예치료를나 산림치유에 있어서 식물,

동물, 곤충, 음식, 농업노동, 환경과 문화 등 여러 자원이 광범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생산활동, 산출물 등과 연관된 치유서비스이다. 국민들의 심리, 사회 인식 및 신체 등의 건강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컫는다.

치유농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농업과 서비스업의 유기적 연결을 형성하려는 농업의 서비스기능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자들은 치유 농업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 사용자에 대한 분석, 질환분석과 시설, 프로젝트 계획 개발, 안전 및 보호 방법이나 비용 등에 관한 경제적 효익 분석,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방식 등이 있다.

한국에서 치유농업을 제시한 뒤로 이와 관련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 년 3 월 24 일)이 반포되었다. 이를 통하여 치유농업의 산업발전은 법적 측면에서 보장되어 해당 영역에서 전문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자격증 도입과 치유 농장 상업모델의 개발 등 관련 활동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치유 농업을 테마로 국내외 학술포럼, 학술 회의, 박람회와 비롯한 이벤트들을 주최하였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험을 거울 삼아 국가와 지방을 위주로 치유농업의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3 치유농업의 기대효과

치유농업은 다기능 농업 (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지역 헬스케어 (community-based health care)의 특징까지 갖추고 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치유농업이 특정 지역에서 발휘하는 사회서비스업 기능을 사회성 회복(rehabilitation), 치료(therapy), 보호성 작업(sheltered work),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등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최근에는 환경문제, 경쟁시화, 과도 생산과 개발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극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농업소재, 농사 활동, 농촌환경 등 요소들을 사용하여 사람과 자연의 접촉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는 작용방식에 많은 전문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농사 활동은 사람의 심신건강, 노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와 향촌의 빈부격차와 비롯한 문제에도 완화 및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치유농업은 향촌여행과 체험, 향촌축제, 향촌문화개발, 농산물 판매에서 개개인의 심신건강의 유지 측면까지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며 주기성, 일관성 등 특성을 가지며 대량의 개발 가능한 형태들을 갖추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산품의 생산·소비 가치 사슬을 늘렸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수입

을 높였다. 더구나 청년들이 귀농·귀촌과 농업 생산에 참여하도록 제창하여 일자리 창출과 비롯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농사 활동은 농업노동을 통해 음식을 얻거나 농업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가져오는 일반 상품의 특성만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에게 녹색경관이나 에코시스템의 다양화 유지 등 공공재와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사 활동의 공공재 특성 부분의 설명참고). 치유농업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동식물 등 농업관련 요소들이나 농산품의 생산활동-농촌이나 농업환경, 문화 등 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 사회, 신체적 등 여러 건강들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활동이다.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장애집단의 강양(康養)과 시민들이 레저 농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 측면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 농업 영역의 국제 협력이 한중 농업·농촌 협력하는 데에 있어서 크나큰 잠재성을 구비하고 있다.

5 중국과 한국의 농업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전망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 농협은 종합적인 사회경제조직으로 농촌 진흥 과정에서 비영리적 사단법인으로 '제3의 부서' 역할을 하였으며 농업종사자들의 상호 돕는 것을 통해 소농 경제에서 경제적 개체의 시장 대응력을 향상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관리와 완전한 시장행위 사이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지녔다. 중국의 농업 건설의 모델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농업은 자원의 상호 보조 협력은 윈-윈에서 나아가 더 욱 심층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쪽의 자유무역구의 건설에서 농업의 협력과 농산물 수입에서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농업 관광과 농업의 강양(康养)사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의 우세와 한국의 정밀한 관광자원의 특색을 활용하여 농업 관광과 강양(康养) 사업의 공동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농산품의 플랫폼의 건설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과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농산품의 온라인 무역의 양은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부족해 보여 농산품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이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농촌에서 노력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술적인 연구의 협력을 통하여 서로 지역의 향촌 발전의 공통 문제를 탐구할 수 있다. 특히 2020년의 코로나의 발생으로 사람들은 보편 적으로 위생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이 많아졌다. 향촌의 관광과 거주하는 추세가 강해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양국 사이에서 협력할 수 있다. 농업과 복지 영역에서 농업치료, 도시농업의 경관, 농촌의 자연 경관 디자인, 농사 활동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고 심리적인 힐링에 대한 작용 등에서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종자업, 농산품의 고수준 가공 등 측면에서의 협력은 향후 경제무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농업 측면에서의 협력은 중국 향촌진흥전략의 시행과 한국 국제경제무역 협력의 촉진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 상품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촉진하는 데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

- [1] Chukwuma Dim, Uju Ezenekwe. Does Agriculture Matter for Economic Development? Empirical Evidence from Nigeria, *Journal of Finance & Economics*, 2013 1(1): 61-77.
- [2] Dillon A., Porter M. and Ouedraogo A. Social network targeting of agricultural technology: Adoption, input substitution and yield effects. Selected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August 5-7, 2018.

- [3] Mgbenka. R. N., Mbah E. N. and Ezeano C. I. A Review of Small holder Farming in Nigeria: Need for Transformation, *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Journal* 2015, 5(2):19-26.
- [4] DeBrun S., DeBoer B., Beerens H. and Verbeek H. What Is A Green Care Farm, and What Elements Can Be Considered For Other Dementia Care Settings? *GSA 2016 Annual Scientific Meeting*.
- [5] 김은진. 농지문제와 농지법 개정방향의 모색. *한국경영법률학회, 經營法律* Vol.31, No.2, 2021.
- [6] 孙占芳. 治愈农业国际合作与乡村振兴高质量发展, 山西农业大学, 2023年7月3日, 山西, 晋中。
- [7] 孙占芳. 韩国农业及农协发展, 日本立命馆大学东亚讲坛, 2017年12月22日, 日本立命馆大学草津校区。
- [8] 孙占芳. 二元结构问题的国外解决方案借鉴: 以韩国为例的思考, *农村经济与科技*, 2012 (023) .
- [9] 中华人民共和国农业部网站资料<http://www.moa.gov.cn/>.
- [10] 농업협동조합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14353#0000>.
- [11] 한국농업연감, 2019/2020.
- [12] 농수축산신문, 2019.
- [13] 한국농협자료, www.nonghyup.com.